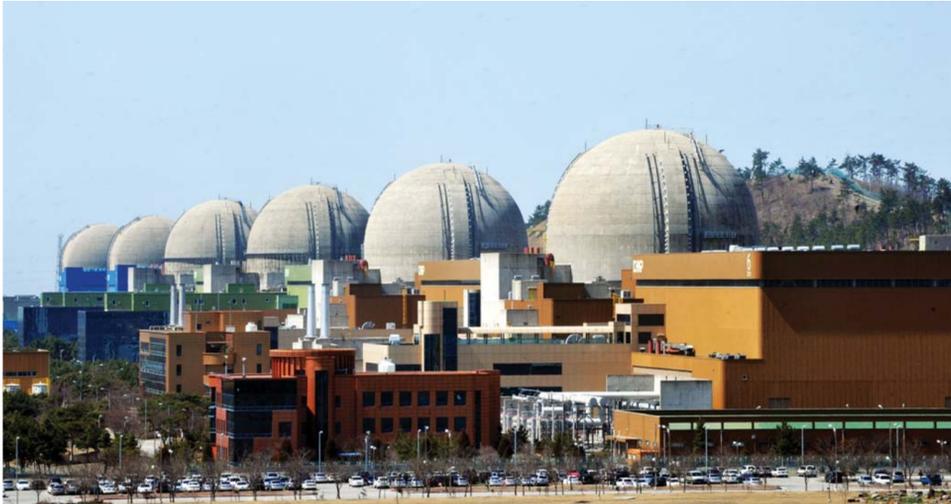


# 한빛원전 3·4호기 재가동 추진 불안감 팽배

### 5월·9월 각각 재가동 계획 가동 중단 수년 "아직 정비중" 사고 잦고 수백개 공극 못메워 원전세 줄어 지역경제도 타격



한빛원전 전경. 오른쪽에서 3번째가 3호기, 네번째가 4호기다. 한빛원전 3·4호기가 가동을 멈춘 지 각각 2년, 3년을 넘기면서 지역민들의 불안감이 깊어질 않고 있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한빛원전이 멈춰선 지 1000일을 넘기면서 지역민들 불안감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갖은 사고에도 한수원 측의 정보제공이 미흡하다 보니 지역민들 사이에 불신과 불만이 자리잡으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왜 이렇게 오래 걸리나" 불안=4일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한빛 4호기는 지난 2017년 5월 18일 가동을 멈췄다. 1000일(2월 11일)이 지나도록 여태껏 정비중이다. 통상적인 계획예방정비기간(2~3개월)을 훌쩍 넘겼다.

한빛 3호기도 비슷하다. 지난 2018년 5월 11일 가동을 멈추고 계획예방정비를 시작한 이래 664일이나 지났다.

성 평가를 하는 것을 누가 이해하겠나"면서 "제3의 기관을 통한 평가를 요구했는데, 시공사 측이 설계 자료를 남길 수 없다며 반발해 여태껏 제 자리"라고 했다. 애초 가동을 멈출 때만해도 57개였던 공극(구멍)도 1년 뒤에는 140개로 3배 가량 늘었다.

이대로라면 한수원측이 애초 계획한 9월까지의 계획 예방정비기간도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한빛 3호기도 비슷하다. 당초 지난달 25일까지 정비를 마쳐 재가동할 계획이었지만 오는 5월로 3개월 늦춰졌다. 그나마 최근 구조물건전성평가에 들어간 했지만 가동해도 되겠다는 지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 지는 불투명하다. 지난해만 해도 계획예방정비기간 중 진행된 '적남건물 종합누설시험'(ILRT·누설확인을 위해 공기 가압을 하는 방법)은 통과하지 못했

다. 적남건물 일부의 누설 여부가 확인된 것이다.

여기에 3년 넘게 멈춰섰던 원전의 공극 수리만 완료해 재가동을 결정하는 게 안전할 지에 대한 불안감은 여전하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지역경제는 어쩌나=우선, 3년 넘게 원전 3·4호기가 가동을 멈추면서 지역경제에도 영향이 적지 않다.

당장, 원전 가동 중단으로 매달 원전세가 될 견고하고 있는 실정이다.

원전세는 특수 재난예방 등 안전관리사업 및 환경보호·개선사업, 지역자원의 보호 및 개발, 소방사무, 지역균형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거나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원자력발전 사업자에게 부과한다.

한빛원전은 지난 2016년에만 442억원

의 원전세를 냈지만 2017년 373억원, 2018년 313억원, 2019년은 236억원 등으로 줄었다. 올해는 한빛 3·4호기 재가동이 될 경우 280억원 수준으로 예상되지만 불확실하다.

원전세로 추진하는 원전 인접지역 환경 방사능 분석 지이나 방사능 방재훈련비 등 관련 사업비도 줄어들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원전 인근 지역민들의 경우 원전 안전성 문제로 인한 불안감을 안고 살아가는 것도 모자라 원전측의 부실한 운영·관리로 인한 가동 중단 때문에 입는 손실까지 감수하고 있다.

지역민들은 "한빛 원전 자체의 잘못으로 원전이 정지된 것이므로 이로 인해 원전세가 감소돼 지역 경제에 타격이 된다면, 이를 보상 하는 쪽으로 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병호 기자 jusbh@

오늘의 날씨

해돋이	06:57	달뜨기	13:27
해질	18:32	달집	03:24

경칩(驚蟄)  
고기압 영향으로 대체로 맑겠다.

광주	맑음	0/9	보성	맑음	-1/9
목포	맑음	1/5	순천	맑음	0/10
여수	맑음	1/10	영광	맑음	0/6
나주	맑음	0/9	진도	맑음	2/7
완도	맑음	2/9	전주	맑음	-2/8
구례	맑음	-1/10	군산	맑음	-1/6
강진	맑음	0/9	남원	맑음	-3/8
해남	맑음	0/7	흑산도	맑음	3/6
장성	맑음	-1/9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풍향	파고 (m)
서해남부	북서~북	2.0~3.0
면바다(북)	북서~북	2.0~4.0
면바다(남)	북서~북	2.0~4.0
남해서부	북서~북	2.0~3.0
면바다(서)	북서~북	2.0~4.0
면바다(동)	북서~북	2.0~4.0

◇생활지수

감기	높음
뇌졸중	높음
미세먼지	보통

◇주간 날씨

6(금)	7(토)	8(일)	9(월)	10(화)	11(수)	12(목)
☀	☁	☀	☁	☀	☀	☀
-2/13	3/11	5/18	6/17	9/12	3/11	2/14

## 광주 동구, 총장축제 시민제안 콘텐츠 공모

광주시 동구가 '제17회 추억의 총장축제' 시민 제안프로그램을 공모한다.

이번 공모전은 시민이 직접 축제기획자로 참여해 축제 추진과정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자유롭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해 축제 프로그램으로 구성해 민과 관이 함께 만들어가는 총장축제를 구현하기 위함이다.

공모분야는 추억·광주다움·외연확장 등으로 구분해 '추억'은 ▲추억을 테마로 하는 참여·체험프로그램, '광주다움'은 ▲광주동구를 반영한 프로그램 ▲광주시민의 저력과 문화예술의 우수성을 보여줄 수 있는 프로그램, '외연확장'은 ▲축

제전국화 및 아시아중심축제로 도약하기 위한 프로그램 ▲축제 이소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대규모 퍼포먼스 분야 등이다. 기타 ▲축제드레스코드 '청바지' 확산을 위한 프로그램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 등의 아이디어도 모집한다.

참여방법은 축제에 관심이 있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시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동구청 홈페이지와 총장축제 누리집(http://www.donggu.kr/cjf/)을 통해 오는 27일까지 방문·우편·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김한영 기자 young@kwangju.co.kr

## 광주 북구 소외계층 미용·목욕 무료 서비스

광주시 북구가 '코로나19' 확산 장기화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취약·소의 계층 행거기에 나섰다.

4일 북구에 따르면 이달부터 관내 소외 계층을 대상으로 미용권·목욕권을 무료로 제공하는 '사랑 나눔 그린카드' 사업을 실시한다.

'사랑 나눔 그린카드' 서비스는 소년소녀가장, 조손가정 등 어려운 이웃이 구청이 지정된 미용·목욕업소를 연중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광주시에서 유일하게 지난 2008년부터 운영해 오고 있다. 지난해에는 65개의 미용·목욕업소가 참여하고 145명의 대상자에게 그

린카드를 발급했으며, 그동안 759개의 미용·목욕업소가 참여하면서 총 1589명의 소외계층에게 서비스를 제공했다.

북구는 올해도 미용·목욕협회 관계자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나눔을 실천할 미용업소 58곳과 목욕업소 9곳을 발굴했으며 166명에게 그린카드를 발급한다.

참여업소에는 사랑 나눔 실천업소임을 안내하는 표지판을 지원하고 카드 소지자는 지정된 업소에서 1년간 매월 미용서비스 2회, 목욕서비스 4회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5·18 40주년 기념행사 국민행사위원 모집

5·18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주먹밥 나눔의 가치를 실천할 사람을 찾는다. '제40주년 5·18민주화쟁기념행사위원회'(5·18 행사위)는 "다음달 17일까지 국민행사위원 400명"을 모집한다. 국민행사위원 참여는 누구나 가능하고, 5·18 행사위 홈페이지에서 참가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하고, '오월공동체상' 시상비로 사용될 5000원 이상의 참가비를 납부해야 한다. /정병호 기자 jusbh@

공동체상을 시상하는 역할을 한다. 국민행사위원회에 참여하면 기념배지와 위촉장을 받고, 40주년 5·18기념행사상제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다. 국민행사위원 참여는 누구나 가능하고, 5·18 행사위 홈페이지에서 참가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하고, '오월공동체상' 시상비로 사용될 5000원 이상의 참가비를 납부해야 한다. /정병호 기자 jusbh@

## 3월 감염병·산불·황사 주의...광주시 빅데이터 분석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광주시는 4일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3월 중에 집중되는 감염병, 산불, 해빙기 안전사고, 황사(미세먼지) 등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광주시에 따르면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이 '경계'에서 '심각' 단계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시민들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30초 이상 손 씻기, 기침예절 지키기 등 개인위생 수칙을 철저히 지킬 것을 권고했다. 또 건조한 날씨 속에 산불 발생 위험이 높다

며 연중 산불발생 건수 가운데 절반 이상이 3월에 집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10년간 발생한 산불 33건 중 19건(57.6%)이 3월에 발생했다.

광주시는 오는 5월 15일까지 봄철 산불조심기간에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하고 산림청, 소방본부, 기상청 등 유관기관과 공조해 산불예방에 나설 계획이다. 이와 함께 3월에는 고비사막과 내몽골 등 중국 북동지역에서 발생한 황사의 유입이 가장 빈번한 시기여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최권일 기자 cki@

조선의 신작 시집

# 꽃, 향기의 밀서

본시 땅위에 길이 없어 가는 사람에게만 길이 된다. 꽃도 풀이었다가 꽃으로 보는 사람에게만 꽃이 된다. 그냥 스쳐 지나가지 않고 꽃의 마음으로 가까이 다가가서 대화를 나누고 내뿜어야만 꽃의 생애가 보이고 향기의 밀서도 받게 되는 것이다. 빛으로 오롯이 쌓아올린 철학적 성찰이 침묵의 결박을 풀고 물마루를 건너와 이야기하는 물속의 향기로 밀어 귀를 기울인다. 꽃의 속삭임에는 애처로운 누이의 생애와 어머니의 새카맣게 애간장 타는 속울음이 있다. 꽃마다 대지의 조근조근한 숨결을 건너온 계절이 있다.

조선의 시인은 꽃의 시인이다. 일찍이 김춘수 시인이 무의미한 사물을 호명해 '꽃'으로 상징되는 존재론적 의미를 부여했다면, 조선의 시인은 우리의 인식망에서 멀리 있던 실제 꽃들을 찬찬히 불러들여 고유의 향기를 부여했다. 꽃은 향기로 숨 쉰다. 그래서 꽃은 향기로 실존한다. 그런 의미에서 조선의 시인의 꽃시는 꽃을 읽은 우리 시단의 꽃시이요, 향기 없는 세상의 꽃씨다. 시인의 시집을 읽노라면 마치 시인이 테리고 나온 꽃들과의 나들이에 초대받은 기분이다. 향기 풀풀 나는 초대연에 한껏 취하고 만다.

- 김광희시인

조선의 시집

「당신 반칙이야, 빛을 소환하다, 꽃, 향기의 밀서,」

「어쩌면 쓰러린 날은 꽃피는 동안이다, 돌이라는 새,」

시인 조선의

조선의 프로필

- 농민신문신춘문에 당선
- 김만중문학상
- 신석정출판문학상
- 현. 서은 문병관 문학연구소 초빙교수
- 기독신문에 당선
- 거제문학상
- 안정복문학대상 등 수상